

보도시점 : 2023. 9. 15.(금) 10:00 이후 / 배포 : 2023. 9. 15.(금)

민관 합동 재건협력 원팀 코리아, 우크라이나 첫 방문

-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건지원 약속 이행을 위해 신속히 방문 -
-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예방 및 중점 추진 '6대 프로젝트' 선정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민·관 합동 「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 (원팀코리아)」을 최초로 구성*하여, 9월 13일(수)부터 9월 14일(목)까지 이틀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였다.

* (정부) 원희룡 장관(대표단 단장) 등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 (공공·민간기업) LH, 수자원공사, 코레일, 한국공항공사, KIND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삼성물산, 현대건설, HD현대건설기계, 현대로템, 네이버, 유신, 한화솔루션, 한화건설, KT, CJ대한통운, 포스코 인터내셔널, 해외건설협회(총 18곳)

○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대통령, 총리 및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한 후,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「한국-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」을 개최하여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였고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였다.

□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함과 동시에, 대통령 주재 재건협력 기업간담회에 따라 양국 간의 약속*(7.14, 폴란드)을 통해 우리 기업이 건의한 현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.

* 한-우 정상회담(7.15, 키이우)을 통해 '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' 발표 : 우크라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·기업 간 협력을 확대, 인프라 등 협력사업 신속 추진

① 우크라이나 대통령 예방

□ 우선,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(Volodymyr Zelenskyy) 대통령을 예방하였다.

-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불 규모의 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며 고속철도 및 수자원, 에너지 및 자원, 방산,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하였다.
-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월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‘평화 연대 이니셔티브’에 따라 재건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표단을 꾸려 함께 방문한 것임을 밝히며,
 -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 - 또한,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모두 한국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, 참석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였다.
- 한편 원희룡 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 임석 하에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*을 정식으로 체결**하였다.

* 공여협정(A/G) :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양국 간 EDCF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 적시

** (가서명) 경제부총리 - 우크라 경제부총리 간 가서명(5.17, 서울)
 (정식서명) 제반절차 이행 후 주 우 대사 - 우크라 경제부총리 간 정식서명(9.13, 키이우)

- EDCF는 개도국의 경제·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·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, 23억불 규모의 對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 시 EDCF를 통해 20억불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.
- 향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2 한-우크라 협력 거버넌스 고도화

- 그간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력은 재건을 총괄하는 인프라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으나, 이번 키이우 방문을 계기로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확장하였다.

-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데니스 쉬미할(Denys Shmyhal) 총리를 예방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방향 및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의지를 설명하였다.
 - 이와 함께,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식수공급을 연내 헤르손 주(州)에 조속히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 - 쉬미할 총리는 이번 방문이 최고위급 협력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의미가 있는 방문으로서,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·도시 복구 등에 대해 오늘 방문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.

- 또한, 올렉산드르 쿠브라코브(Oleksandr Kubrakov)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을 면담하고, 지난 5월 폴란드에서 체결한 양국 간 재건 협력 MOU를 바탕으로 10차례 이상의 화상회의 등을 거쳐 발굴한 ‘6대 선도 프로젝트*’에 대해 논의하였다.
 - *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, 우만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,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, 부차市 하수처리시설,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, 철도노선 고속화(키이우~폴란드 등)

- 이와 함께, 우크라이나 공무원 및 기술인력 등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책 노하우와 실무기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.
- 한편, 재건부총리 및 인프라부 차관은 대표단 기업들과의 별도 면담을 먼저 제안하는 등 우리 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.
 - 우리 기업들은 면담을 통해 철도, 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부터 스마트시티, 댐, 원전 및 플랜트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의 뛰어난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구체적인 재건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이와 함께 헤르만 할루시첸코(German Galushchenko)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플랜트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
③ 6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

□ 한국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동으로 「한국-우크라이나 재건 협력포럼」을 개최하고,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중점 추진할 6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다.

① 우선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는 우리나라 수도권과 유사한 키이우 지역*(수도 키이우市 포함)에 대한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.

* 키이우 지역(Kyiv Region)은 키이우市(수도) 및 키이우州(인근권역)를 의미

-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·저탄소 기반의 모빌리티 인프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교통망과 이어지는 주요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방안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.
- 특히, 수도인 키이우市와 인근 키이우州를 망라하여 핵심 교통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②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市에 대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.

-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만市를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빌리티, 재난재해 대응, 친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및 솔루션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.

③ 한국공항공사에서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인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.

- 보리스필 공항은 전후 우크라이나 항공수요의 약 80%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(우크라이나 인프라부)되는 상황으로, 시스템 현대화부터 안전 관련 시설정비, 활주로 정비·확장 등 운영부터 인프라 정비까지 아우르는 종합 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키이우 인근 부차市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. 해당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,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한 지난 6월 파괴된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.

- 카호우카 댐*은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재건 추진방향을 마련('23.7월) 하는 등 복구를 서두르는 상황으로, 한국 또한 댐 및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하루 대규모 침수, 물 공급 차질, 수력발전 중단 등 대규모 피해 발생

⑥ 국가철도공단 등은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노선의 고속화 및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- 그간 우크라이나는 화상회의 및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철도 인프라 및 운영 노하우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. 이에 따라,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주요 노선(키이우~폴란드 국경 등)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6대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 추진의 가장 첫 단계인 계획 수립부터 조속히 착수하여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. 한국이 수립하는 계획 및 표준을 활용하여 후속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4 민간주도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

□ 「한국-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」을 통해,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가 될 우크라이나 측 정부기관들과, 협력 파트너인 우크라이나 기업들을 초청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.

* (우) 재건부총리, 재건청장, 미콜라이우 주지사, 한-우친선의원, 건설협회장, 상의의장 등 정부부처·공기업·민간기업 90여명

* (한) 국토부 장관, 주 우크라이나 대사, 공공·민간 대표단, 현지 코트라 등 40여명

□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는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이 참석하고, 인프라부 차관 등이 재건계획 및 핵심 프로젝트·우선순위 등을 직접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 및 기업과의 강한 협력의지를 보였다.

- 우리 기업 또한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트윈, 댐 및 플랜트, 모듈러 주택, 건설기계 등 관심있는 협력분야에 대해 발표하였고, 우크라이나 측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들과 1:1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.
- 또한,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장관 임석 하에 업무협약(MOU)을 4건 체결하였다.
 - 우선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간 체결('23.5)한 재건협력 MOU의 이행을 위해, 집행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와 우크라이나 재건축 간 MOU를 체결하였다.
 - 또한, KIND는 우크라이나 오스차드뱅크(OSCHADBANK, 국영저축은행)와 우리 기업에 대한 재건 관련 금융지원 및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.
 - HD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미콜라이우주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. 특히, 재건 현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미콜라이우주에 150만불 규모의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.

5 재건협력 플랫폼 본격 가동

- 한편, 원희룡 장관은 9월 15일(금)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의 HUB 국가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 '우크라이나 재건협력센터' 개소식에 참석한다.
 - 이는 지난 7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'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간담회'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현지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,
 - 앞으로 재건협력센터는 재건 협력과 관련한 현지에서의 기업 지원을 총괄하면서,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정부·기업, 다자간 개발은행(MDB)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그간 우리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는 관심이 많으나, 직접 현지에서 활동할 기회가 없었다”면서, “정부-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다”고 밝힌다.
- 또한, “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발판 삼아, 우리 기업이 조속히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네트워크, 금융 및 타당성 조사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 최신형 (044-201-3516)
		담당자	서기관 김영지 (044-201-3517)
		담당자	사무관 고명윤 (044-201-3520)

